

## 20년 통계로 본 '전남 득량만권 인구'...평균 32% 급감

호남지방통계청 '고흥·보성·장흥' 인구변화 관찰

생산인구 줄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세 지속

남해안의 한 축인 득량만(得糧灣)에 속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군 등 3개 지자체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통계로 본 2000년 이후 득량만권 인구변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득량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고흥·보성·장흥 3개 지자체 인구는 20년 간 평균 32% 급감했다.

이 중 고흥군의 인구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고흥은 2000년 10만1000명에서 2019년 말 6만5000명으로 35.7%(3만6000명) 급감했다.

보성은 6만1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32.5%(2만명) 감소했고, 장흥은 5만3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27.8%(1만4000명) 감소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도 고흥→보성→장흥 순으로 급감했다.

고흥은 2000년 4만2000명에서 2019년 말 3만5000명으로 49.2%(3만4000명) 급감했다.

보성도 4만2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44.3%(1만4000명) 줄었고, 장흥은 3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37.5%(1만4000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

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처럼 득량만권 3개 지자체도 예외는 없었다.

고령인구 증가율은 고흥군이 가장 높았다. 고흥은 2000년 1만9000명에서 2019년 말 2만6000명으로 20.9%(7000명) 증가했다.

보성군도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18.5%(3000명) 늘어났고, 장흥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15.1%(3000명) 상승했다.

3개 지자체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 15.5% 대비 2.6% 높은 18.16%를 보일만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국인 이주여성과의 결혼과 노동인력 유입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외국인수도 2003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흥군은 2003년 131명에서 2019년 말 1059명으로 708.4%(928명) 폭증했다. 보성군도 118명 대비 370명으로 313.6% 급증했고, 장흥군 또한 165명 대비 592명으로 258.8% 증가했다.

3개 지자체 모두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로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흥군은 2000년 802명에서 2019년 252명으로 68.6% 급감했다. 보성과 장흥군도 72.7%, 5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수도 줄어들

었다. 감소폭은 장흥군이 가장 컸다. 장흥군은 2000년 9794가구에서 2019년 4806가구로 50.9% 감소했다. 다음은 보성군으로 1만781가구에서 8841가구로 36.5%, 고흥군은 1만8025가구에서 1만1631가구로 35.5% 줄었다.

득량만을 사이에 둔 이들 3개 지자체에는 어업과 양식업 종사자들이 많았지만 인구 감소

영향으로 어가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수 감소폭도 농가수와 마찬가지로 장흥군이 가장 컸다. 장흥군은 2000년 1359가구에서 2015년 638가구로 53.1% 줄었다. 이어 고흥군은 3375가구에서 2673가구로 20.8% 감소했고, 보성군도 588가구에서 478가구로 18.7%

줄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라면서 "소지역 별 통계인 만큼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수능 모의평가 수험생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6일 오전 광주 북구 서강고등학교에서 수능 9월 모의평가가 펼쳐진 가운데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받고 있다.

## '무늬만 고속철도'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되나

전남·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익산-여수 전라선 서울까지 아직도 3시간

'무늬만 고속철도'로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이 고속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과 전북 지차단체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고속화 KTX 운행이 시작됐지만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전남도를 비롯한 동부권 3개 시행정협의회(여수·순천·광양)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라선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저속전철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여수·순천권 해양 관광객 등 연간 방문객이 2017년 2797만명에서 2019년 3484만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남도와 동부권 행정협의회, 전라선권 KTX협의회 7개 시·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광양·여수)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영하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한 개

발논리 당위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동부권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김희재, 소병철, 서동용 의원이 건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각계 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라선 고속철도가 추진되면 전남·북은 물론,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각급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역량을 결집해 국가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담양군, '담양애 주소갓기 운동' 본격 전개

관내 기업체, 기관 등과 릴레이 협약 체결 인구늘리기 운동 본격화

담양군이 인구감소 문제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담양애 주소갓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담양군은 16일 담양군청년정책협의회, ㈜자연과사람들과 함께 인구늘리기 제1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지역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인구 5만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관내 20여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릴레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숙사 근로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로 주소 옮기기를 권장

하고 전입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전입신고 신청에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출향 향우회와 관내 소규모 기업체에 군수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다양한 전입 장려 지원책이 실린 홍보물을 발송해 담양애 주소갓기 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녹차수도보성**

### 제8회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

2020. 9. 17.(목) ~ 20.(일) 보성군 일원

대한민국티블랜드 대회	2020. 09. 17. 10:00
류지광·추가열의 차밭힐링콘서트	2020. 09. 17. 15:00
세계차품평대회	2020. 09. 18. 10:00
보성차골든벨	2020. 09. 18. ~ 20.
보성 U 페스티벌(UCC 공모)	2020. 08. 03. ~ 31.
보성차 50% 특별기획판매전	2020. 09. 17. ~ 20.

www.bsworldteaexpo.kr

주최 주관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남원녹차산업발전회 전남도 녹차협회

문의 062)974-9103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tf

## BS 삼총사

**녹차몬** **꼬막몬** **키위몬**

### 보성 특산물 캐릭터